

종합·해설

정치권도 '3불정책' 논란 가세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 금지〉

노대통령 "교육 불평등 심화... 폐지 안된다"

정운찬 전 총장 "교육부는 고등교육 손 때라"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과 학생선발권 자율화를 노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최대의 화제에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외권 대신주자권 중 한명인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논란에 가세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3불정책 고수를 천명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의 3불정책을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압초같은 존재라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책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올 대선 후보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이날 서울대 강연회에서 '3불정책 폐지 카드'를 꺼내놓고 나섰다.

정 전 총장은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3불 정책 폐지'를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3불 정책 폐지론에 정면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거부 업무보고에서 "몇몇 대학에서 지금 입시제도를 흔들고 있는데 아주 격조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불정책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공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압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김지하 시인 만난 孫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23일 창덕궁 인근 '싸움 마고'에서 김지하 시인을 만나 증오개혁 세력 연대 방안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연필뉴스

교육부, 3불정책 위반 대학 엄단키로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압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 더욱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주자들, 孫에 견제구

전장배 "우리쪽 후보 될 수 없다"

김근태 "손 전 지사와 뿌리 달라"

손학규 전 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을 놓고 한영 일색이던 범여권 기류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개혁 코드'로 분류되는 대선주자 군을 중심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대상 아니냐"는 노골적 비토 기류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열린우리당과 탈당그룹 내부에서도 설부터 '러브콜'보다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먼저 탈당그룹 '민생정치모임'을 이끄는 전장배 의원이 조직력을 낚아서 개혁 정책성을 강조하고 있는 천 의원은 21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저기 오늘과 내일'에 출연, "손 전 지사가 우리 쪽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폐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반(反) FTA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김근태 의원은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

연, "손 전 지사와 나는 중요한 역사적 고비에서 선택을 달리했다"며 "손 전 지사는 민주당에 참여했고, 나는 정통야당인 민주당에 참여했다"고 손 전 지사와는 '뿌리'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신당모임 소속의 염동영 의원은 "얼마 전까지 반대편에서 서서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 아니냐"며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명분이 없는 보따리장사라고 한 말이 그리 틀린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중도심을 성향이 강한 정동영 전 의원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 전 지사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반(反) 한나라당 전 선 속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당 정영달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고, 당장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문병호 의원은 "당장 범여권에 와서 활동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Court Auction Real Estate Sale Notice). It lists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address, area, and price, organized in multiple columns.

2007.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최보원